



17번째 사랑의 바자, 우리를 치유하다

인재근 (사랑의 친구들 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인재근입니다.

지면으로는 2005년 이후 9년 만에 드리는 인사입니다. 근 10년, 강산이 변한다는 말에 걸맞게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 남편이자 동지인 민주주의자 김근태가 하늘로 떠났고, 김근태의 뜻을 이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2년 '복지가 곧 인권이다' 라고 외치며 제19대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었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고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17번째 바자입니다.

저에게는 김근태 없이 맞는 세번째 바자입니다. 즉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맞이하는 세번째 바자이기도 합니다. 남편 생전에 옆에서 지켜볼 땐 국회의원이 이렇게 바쁜 직업인 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참 많이 다그쳤던 것 같습니다. 직접 해보니 몸이 두 개, 세개여도 모자랄 판인데 말이죠. 그렇게 바빠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연례행사가 바로 「사랑 나누기 바자 한마당」, 사랑의 바자입니다. 이제는 여름만 되면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사랑의 바자는 어느덧 인재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바쁘다바쁘다, 힘들다힘들다 하면서도 바자만 치르고 나면 어디에선가 알 수 없는 힘이 샘솟는다는 겁니다. 바자에서 흘린 땀방울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행복과

희망을 싹틔울 씨앗이고 거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바자는 제 나름의 '힐링' 이고 '치유' 입니다. 참 아픈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도 반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도 멍멍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바자' 의 의미를, '사랑의 친구들' 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의 친구들이 되어 세월호의 아픔을, 우리 사회의 아픔을 사랑으로 보듬고 품어내는 그날을 가슴에 그려봅니다.

갈 길이 아직 멍니다.

바자 횡수가 어느덧 17번, 우리 나이로 치면 꽃다운 청년 시절 17살입니다. 청년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건 어찌면 축복이고 행운입니다. 우리의 17살이 가장 아름다웠듯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의 바자가 스무살, 서른살을 훌쩍 넘겼을 그날을 그려봅니다. 바자의 나이가 커질수록 우리 사회의 봉사와 나눔 문화도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사랑의 바자는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자 의지입니다. 사랑의 길, 봉사의 길, 그 길은 멀지만 여러분과 함께여서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몸도 쑹쑹! 마음도 쑹쑹!! 정말 재미있는 여름캠프!!!

글로벌어린이재단 후원으로 1,421명 어린이 연합캠프 참여

글로벌어린이재단(총회장 조은옥)이 후원하는 연합캠프는 여름방학 동안 2박3일간 진행한다. 5개 이상의 지역아동센터가 연합하여 힘을 모으면 캠프 준비의 어려움은 줄어들고, 많은 인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캠프 프로그램 진행도 가능하게 되어 아이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진다. 올 여름 공모를 통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421명이 캠프의 재미에 흠뻑 빠져들었다.

원주

또래친구와 함께 하는 어깨동무 연합캠프 7.28~30

- ★ 6개 기관, 131명 참여
충북 괴산군
이화여자대학교 고사리 수련관
- ★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연합하모니, 함께 하는 세상 그리기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다.
- ★ 청주 사랑의 한울타리 : 초록나무지역아동센터, 국사소로지역아동센터, 신나는지역아동센터, 청주북부지역아동센터, 청주우리지역아동센터, 헤민지역아동센터



원주

상상나래 펼치기 8.4~6

- ★ 7개 기관, 95명 참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 체험학교
- ★ 진로관련 책을 토대로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방식의 발표를 통해 창의성은 물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진로 캠프
- ★ 원주, 아름다운 동행 : 평강의나라지역아동센터, 개운지역아동센터, 동원주지역아동센터, 소망주기기지역아동센터, 예본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역아동센터, 푸른솔지역아동센터



함안·의령

"HOT 한 여름이 울고 갈 우리들의 COOL한 추억 만들기" 8.6~8.8

- ★ 6개 기관, 153명 참여
경남 남해군 앵강다숲마을
- ★ 바닷가체험이 어려운 농촌어린이들이 넓은 바다와 갯벌에서 2박3일을 보낸다. 다양한 체험으로 열등감과 소외감, 일상에서 내재된 스트레스와 피곤함을 한꺼번에 날려버린다.
- ★ 함안·의령지역아동센터연합 : 사랑샘지역아동센터, 꿈이있는지역아동센터, 대산지역아동센터, 열방지역아동센터, 칠원지역아동센터, 햇살지역아동센터



구리 행복한 어울림 음악캠프 8.7~9

- ★ 7개 기관, 124명 참여
경기 남양주 천마산 기도원
- ★ 2박3일동안 진행되는 음악캠프. 직접 악기를 만들기도 하고, 자유롭게 연주하며, 합주와 합창을 통해 협력과 소통을 배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다.
- ★ 구리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 아치울지역아동센터, 보금자리지역아동센터, 비전스쿨지역아동센터, 예인지역아동센터, 우리지역아동센터, 좋은나무지역아동센터, 하이탑지역아동센터



순천 섬진강을 따라 지리산 느리게 걷기 8.12~14

- ★ 5개 기관, 87명 참여
전남 구례군 용림분교장
- ★ 섬진강 트레킹, 지리산 둘레길 걷기, 텐트치기 등 어린이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움직이는 여행. 친구들과 함께 미션을 해결해 가면서 도전 의식은 물론 우정과 협동을 배우는 일석이조 캠프.
- ★ 희망순천지역아동센터연합 : 장천지역아동센터, 가엘해룡지역아동센터, 동순천지역아동센터, 밀알지역아동센터, 한고을지역아동센터



천안 '아동기 건강한 전생애 기틀 다지기<아! 건전지캠프>' 8.11~13

- ★ 5개 기관, 135명 참여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 건강불평등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건강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강 찾기 캠프. 건강에 좋은 음식과 습관을 배워 보고 다양한 활동으로 응용해 보며 몸도 마음도 튼튼한 어린이로 성장해 나간다.
- ★ 아동건강네트워크 : 햇살기득파랑 새지역아동센터, 광덕푸른지역아동센터, 깨비지역아동센터, 비전지역아동센터, 천안지역아동센터



서울 자연과 함께하는 너와 나의 힐링캠프 8.12~14

- ★ 5개 기관, 123명 참여
경기 포천시 성서대학교 밀알훈련센터
- ★ 대자연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면서 자연의 소중함,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배운다.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는 풀고 기운은 업 시킨다.
- ★ 동대문구방과후연합회 : 천응방과후교실, 반석방과후교실, 사랑아이방과후교실, 열린방과후교실, 전농방과후교실



인천 Unplugged Noriter - 애들아 놀자! 8.12~14

- ★ 13개 기관, 259명 참여
인천 중구 용유청소년수련원
- ★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없는 세상, 어린이들이 드넓은 자연을 놀이터 삼아 자유로움을 만끽해 보는 시간. 놀이의 장을 통해 건강한 어린이로의 성장을 꿈꾼다.
- ★ 계양구거점형지역아동센터 : 선민아이들세상지역아동센터, 새벽지역아동센터, 신나는교실, 씨앗지역아동센터, 영산지역아동센터, 우리누리지역아동센터, 이지지역아동센터, 임학지역아동센터, 작전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키피지역아동센터,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효성중앙지역아동센터



인천

섬을 찾아 떠나는 아이들의 여정 8.12~14

- ★ 11개 기관, 180명 참여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 ★ 어린이들이 직접 텐트를 설치하며 협동심을 길러본다. 대자연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아 보고, 한여름 밤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 ★ 인천지역아동센터협의회 : 행복한지역아동센터, 간석지역아동센터, 금창지역아동센터, 동암지역아동센터, 만수행복지역아동센터, 사랑지역아동센터, 새생명지역아동센터, 석남지역아동센터, 예향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진주공부방



전주

어기여차!! 친구 찾아 떠나는 신나는 캠프!!! 8.12~14

- ★ 6개 기관, 134명 참여
전북 김제시 모악산 유스호스텔
- ★ 어린이들이 다양한 활동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 좋은 친구란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바람직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캠프
- ★ 전주시지역아동센터 : 효자지역아동센터, 미미지역아동센터, 서신지역아동센터, 신나는지역아동센터, 엔젤지역아동센터, 으뜸지역아동센터



어려운 어린이들의 또다른 부모, 공부방의 교사들

6월 11일~13일 교사교육 진행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이들. 이들에게 공부방의 교사들은 제2, 제3의 부모와도 같은 존재이다. 아이들의 학교생활, 친구관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저마다의 사연과 개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개입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공부방 교사들이다. 사랑의 친구들은 2004년부터 과도한 업무에 지쳐가기 쉬운 공부방 교사들을 위해 휴식과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교사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집중되었던 교사들의 시선을 자기자신에게 향하게 함으로써 성장과 부족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 6월 11일~13일, 2박3일 동안 노들담서울교육관에서 이루어진 2014 지역아동센터 교사교육. 26명의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파트너십을 향한 여정'에 참여했다. 파트너십은 삶의 태도 진단 설문지를 통해 '자신이 바라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를 살펴보고, 상호평등함에 기반을 둔 파트너십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내면의 소리', '그림자 작업'을 통해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고, 조를

이루어 협동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서울이라는 도심 한가운데 자리해 있으면서도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교육장 환경으로 교육시간 외에는 인접해 있는 인사동, 북촌한옥마을을 산책하며 함께 휴식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교육은 한국파트너십연구소의 이정희, 권오광 강사가 진행했고 2박3일 동안 17시간의 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에게는 수료증을 전달하였다.



태어나서 처음 본 코뿔소, 지하철 그리고...

제주도 어린이들의 2박3일 신나는 서울체험

'서울초청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부재 등으로 서울 나들이가 힘든 소외지역의 어린이들을 서울로 초청하는 행사로 해마다 글로벌어린이재단(총회장 조은옥)이 후원해왔다. 올해는 공모형태로 서울방문 신청을 받아 한 곳을 선정, 제주도의 공부방 어린이들이 텔레비전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서울을 직접 찾아다니며 추억을 만들었다. 이스타항공(대표이사 김정식)에서도 제주 어린이들이 편히 서울까지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4월 16일(수)~18일(금), 제주도의 늘푸른지역아동센터, 봉아름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이호지역아동센터 어린이 45명이 서울을 방문했다. 이번 서울초청행사는 제주 어린이들이 스스로

의논하여 결정한 대로 서울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 체험하고 싶은 곳으로 꾸며졌다.

첫날, 설레는 맘으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어린이들은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공원 동물원으로 향했다. 제주도에 동물원이 없다. 바다생물들을 제외하면 동물들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거의 없었던 제주 어린이들에게는 비행기도 지하철도 동물원도 처음이다. 서울은 낯설지만 신기한 곳이다.

제주 어린이들의 환영모임은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이루어졌다. 이희호 명예회장이 아이들을 직접 환영해 주었고, 서울초청 행사를 후원해 온



글로벌어린이재단의 박희양 회원이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둘째날은 서대문 형무소와 경복궁을 방문해 우리 역사를 배워보고 알아보며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는 날이다.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온 아이들은 케이بل카를 타고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을 한눈에 바라보기도 하고, 광화문과 청계천광장 등 서울의 중심부를 자유롭게 거닐며 서울의 풍경을 기억했다.

서울초청 행사의 마지막날은 어린이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놀이공원 탐험. 서울 롯데월드를 방문해 바이킹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면서 신나고 즐거운 2박3일 일정을 마쳤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연입니다. 저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은 저희 생각대로 제주도보다 사람이 정말 많고 동물원도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동물원에 갔는데 커다란 새와 코뿔소와 고라니도 보았지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던 동물들이 가득하었어요. 동물원도 너무 넓어서 제주도 한 바퀴 도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도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이 제일 많아요. 동물원 안에 설치된 리프트도 탔는데 마치 한 마리의 새가 되어서 날아가는 기분이어서 좋았어요. 정말 새는 하늘을 날면서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그 다음은 지하철을 타고 김대중대통령박물관에 갔는데 이희호 여사님을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여사님과 악수를 2번이나 했는데 기분이 정말 좋아서 집에 가서도 손도 못 씻었어요. 이희호 여사님이 거주하시는 곳도 알아보고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도 봐서 좋았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다시 서울에 가고 싶습니다. 센터친구들과 다니는 3일은 마치 2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센터 아이들과 친해졌고요, 이젠 다른 친구들을 봐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호지역아동센터 김정연 드림



29차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평가회



6월 25일,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29차 평가회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51개 지역아동센터 담당 교사와 자원봉사자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형편 때문에 영어를 쉽게 접하기 힘든 저소득지역 어린이들도 재미있고 흥미롭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여성들의 순수봉사단체인 미래회(회장 박지영)가 후원하는 교육지원사업이다. 2007년 8개 기관, 76명의 어린이들의 참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84개의 지역아동센터 10,227명의 어린이들이 영어교실에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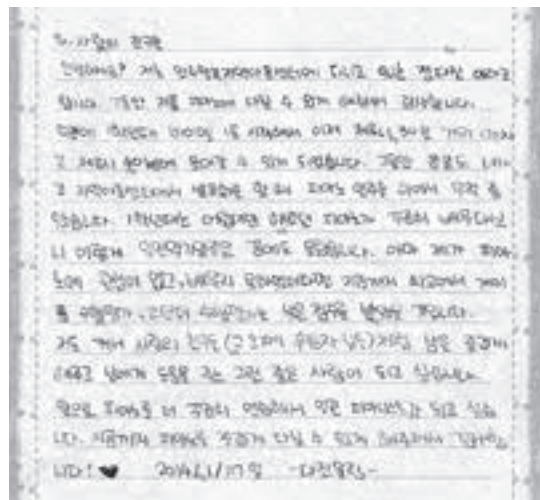
평가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와 자원봉사자가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3년 이상 자원봉사하고 있는 분들에

게 감사의 인사와 선물을 전달하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변화된 모습, 개성있는 수업방식, 영어교실에 관한 제언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수업방향을 모색한다.

<30차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참여 기관>

갈현지역아동센터, 극동지역아동센터, 꽃동산지역아동센터, 꿈샘지역아동센터, 꿈이있는푸른학교, 늘푸른지역아동센터, 다솜지역아동센터, 덕진지역아동센터, 동산지역아동센터, 든든한지역아동센터, 마리아지역아동센터, 만수행복지역아동센터, 무지개지역아동센터(광주), 무지개지역아동센터(익산), 문흥지역아동센터, 반여지역아동센터, 사랑이있는지역아동센터, 석남지역아동센터, 선민아이들세상지역아동센터, 세움터지역아동센터,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신천지역아동센터, 씨앗지역아동센터, 아!우리지역아동센터, 에스더학교지역아동센터, 역곡지역아동센터, 열린방과후교실, 열매지역아동센터, 영순지역아동센터, 영현비전지역아동센터, 예사랑지역아동센터, 오정지역아동센터, 원미지역아동센터, 월곡청소년센터방과후교실, 임마누엘지역아동센터, 전농방과후교실, 조이스터디지역아동센터, 지구촌지역아동센터, 진원지역아동센터, 천응방과후교실, 천재지역아동센터, 춘천반석지역아동센터, 평화디딤돌지역아동센터, 푸른솔생활학교지역아동센터, 풀코스모스지역아동센터,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 한사랑지역아동센터, 행복한지역아동센터, 향기로운지역아동센터, 효자지역아동센터, 희망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개별 아동후원



형편이 어려워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어린이, 사교육은 물론 문제집조차 구입하기 힘든 어린이, 계절에 맞는 옷을 구입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개별아동 후원 장학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린이와 후원자를 연결해 매월 5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한다. 현재 14명의 개별후원자가 22명의 어린이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고 있다.

<개별아동 후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란, 김경희, 김병준, 김수정, 김철웅, 김흥기(2명), 남은미, 노영혜(2명), 성현정(2명), 신선련(2명), 인재근(2명), 정명화(3명), 최병권, 최병철(2명)

2014 공모사업 약정식 - 저소득지역 어린이 연합캠프, 서울초청 행사 지원기관 11개 단체 참여



3월21일, 사랑의 친구들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저소득지역 어린이 연합캠프’와 ‘지방 어린이 서울초청 행

사’에 선정된 기관에 지원증서 전달식이 사랑의 친구들 사무국에서 열렸다.

3명의 심사위원들의 서류심사와 기관 방문 등, 1달여 동안 진행된 심사를 통해 지원이 확정된 연합캠프 10개 연합회와 서울초청 1개 연합회 대표와 담당자 30명이 참석하여 지원증서 전달 및 약정서를 작성하고,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연합캠프와 서울초청 행사는 저소득지역의 어린이들이 2박 3일 동안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면서 한단계 성장해 나아가는 성장 프로그램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함께 하는 사랑의 간식나누기



<상반기 지원기관>

행복한지역아동센터, 무지개지역아동센터, 풀꽃친구지역아동센터, 거자씨지역아동센터, 다솜지역아동센터, 운암지역아동센터, 파란꿈지역아동센터

<하반기 지원기관>

디딤돌지역아동센터, 샘물지역아동센터, 진관지역아동센터, 직산지역아동센터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아이들과 맛있고 즐거운 간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많은 양의 간식이 와서 ‘한 달 동안 다 먹을까?’ 라는 고민도 잠시, 아이들과 간식으로 먹고 상품으로도 포장해서 주고 하니 간식이라는 먹거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더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든든히 먹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긍정적인 모습과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금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더욱 더 성장 할 아이들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다음 아이들은 무럭무럭 잘 성장해 나가겠죠? 감사합니다!

- 다솜지역아동센터 주순일 센터장

2001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후원으로 시작된 ‘사랑의 간식나누기’는 국제선에 실렸다가 개봉되지 않고 나온 주스, 라면, 스낵, 초콜릿 등을 모아 공부방에 6개월씩 지원하는 나눔사업으로 2014년 현재까지 총 497개 기관, 15,330명의 어린이가 사랑의 간식나누기를 통해 성장했다.

이번 2014년 상반기 동안 광주와 서울의 7개 지역아동센터에 정기적으로 지원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에는 충남 천안과 서울의 지역아동센터 4곳을 선정해 간식을 지원하고 있다.

중이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어린이 종이접기 마스터’ 육성 프로그램



‘어린이 종이접기 마스터’ 교육은 2013년 4월에 실시한 종이접기 강사 자격증 과정에서 수료증을 취득한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센터 안에서 직접 어린이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종이접기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응용능력, 탐구심, 관찰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중이문화재단에서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재료비,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 전체를 후원하고 천용방과후교실, 전농방과후교실, 반석방과후교실에서 어린이 36명이 참여하고 있다.

센터에서 종이접기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은 중이문화재단에서 인증하는 3급~1급까지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따뜻한 재단과 함께 하는 ‘가끔 열리는 음악 학교-드림씨클’

매주 금요일 오후, 어김없이 들려오는 쿵쿵쿵쿵 소리는 어린이들이 둥글게 앉아 타악기를 두드리는 소리이다.

‘가끔 열리는 음악 학교 - 드림씨클’은 따뜻한재단과 사랑의 친구들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에 걸쳐 기관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따뜻한 재단에서 어린이들에게 악기를 지원하고 교사를 파견해 어린이들이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음악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타악기를 두드리는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구들과 힘을 합쳐 함께 연주하면서 경쟁이 아닌 상생의 소통방식을 알아가게 된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새 주인을 찾아드립니다.
사랑의 친구들 바자에 물품을 보내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사랑의 친구들이 펼치는 17번째 바자의 아나바다 코너로 보내주세요. 아나바다 코너인 ‘코끼리 장터’에 모인 물품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어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사용됩니다. 물품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사랑의 친구들 사무국으로 보내시거나 바자 당일 일찍 행사장으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사랑의 친구들 /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9길 10 (옥인동 47-483) (02)734-4945~7.



사랑의 목소리 뜨기 캠페인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연중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목소리 뜨기’. 사랑의 목소리 뜨기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와 개인 자원봉사자의 관심과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

2011년과 2012년 두차례에 걸쳐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스레 뜬 2,800점의 목도리가 유진벨재단을 통해 북한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목도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의 목도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후원금은 1만원. 뜨개질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사랑의 친구들 홈페이지(www.friends.or.kr)에서 목도리 제작 동영상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목도리 하나를 완성했을 때 2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문의 : 사랑의 친구들 사무국(02-734-4945~7)

사랑의 목소리뜨기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경숙, 구교연, 권도영, 김가빈, 김귀자, 김수민, 김양남, 김에원, 김은희, 김정애, 김태자, 김학복, 김혜영, 류순애, 박서인, 박수자, 박숙현, 박예린, 박은경, 박재숙, 박재원, 박희민, 박희경, 배은영, 백성순, 백소희, 손옥임, 백진숙, 손정숙, 신명자, 안봉숙, 양임자, 오수경, 오현서, 우애숙, 우지민, 유지민, 유지호, 이명희, 이미경, 이수연, 이승섭, 이아정, 이애숙, 이영주, 이정순, 이정식, 이종욱, 이지우, 이춘형, 이태인, 이홍숙, 이희호, 인재근, 임영숙, 장보원, 전제권, 전태선, 정영순, 정예지, 정춘자, 정호진, 최준희, 최한실, 홍은숙, 홍지완, 황민지

5.17가족, 공능교회, 남원제일교회, 동부교회, 석곡지역아동센터, 한빛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경기남·구미·강원·경기·군산·대전·서울남·서울동·익산·인천·전북동·전북·충남연합회)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공연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초청

백조의 호수 너무 아름다웠다. 무엇이 아름다웠냐면 백조와 왕자가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다. 제일 재미있는 장면은 신나는 노래를 틀고 발레 춤을 추는 것이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또 발레가 시작됐다. 처음 발레가 시작되었을 때는 재미가 없었는데 오래 보니까 재미있었다. 발레를 추는 장면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백조와 왕자가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마녀랑 왕자를 괴롭히는 장면이 재미있었다. 백조의 호수는 너무 감동적이어서 너무 재미있었다. 다음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봐야겠다. 발레는 너무 재미있다.

— 입학지역아동센터 손호영

4월 9일, 매거진 헤렌과 국립발레단의 후원으로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진행된 ‘백조의 호수’ 발레 공

연에 입학지역아동센터, R&T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교사 18명이 초대되었다. 발레를 볼 기회가 거의 없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은 책으로 읽었던 ‘백조의 호수’ 이야기를 발레만의 독특한 표현과 아름다운 군무로 풀어나가는 공연을 통해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감동적인 백조의 호수 발레공연 감상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나름대로 내용도 잘 이해했고 감동한 장면도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보니 아이들 수준에서 제대로 보았더라구요. 예술은 느낌으로 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 입학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이명숙

전세계 고통을 겪는 아이들의 곁으로 다가가는 GCF

한국의 어려운 어린이 돕기 위해
올해 바자에도 해외 특산품, 의류, 가정용품, 비타민 등 준비하고 있어



16년 전인 1998년 동부지역에서 재미교포 어머니 14명으로 시작한 글로벌어린이재단은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한국 등에 20여개의 지부가 있으며 5,000여명의 회원이 있는 명실공히 국제 불우 어린이를 돕는 자선재단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해마다 한국의 불우 아동은 물론 전세계의 불우 아이들을 도와온 글로벌어린이재단의 2015년 세계 불우아동 돕기 예산은 14만 5천불로 책정되었다.

후원지로는 한국, 과테말라, 남수단, 남아프리카, 니팔, 말라위, 방글라데시, 케냐, 잠비아 등이며, 세계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가축과 농작물 제배 등 삶의 현장체험을 통한 결식아동 구제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과 장애아동들을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있는 회원들로부터의 정성어린 회비와 각 지부 회원들의 지역활동을 통하여 만든 행사 수익금, 그리고 미국 연방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기부를 통해 이 세상에 굶는 아이들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어린이재단 어머니 모임이다.

글로벌어린이재단 회원들은 2014년 10월 서울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에서 열리는 한국의 불우 아동돕기 바자 참석을 앞두고 20개 지부에서 어느해 보다도 더 열심히 바자 준비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GCF 회원들의 한국 바자 준비는 거의 1년 내내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지부에서는 반찬 만들기, 걷기대회, 일일차집, 또는 골프대

회 등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바자 물품 구입 비용을 마련하기도 하고, 바자 준비위원장과 회원들은 좋은 물건 할인할 때를 잘 기다렸다가 장거리 운전도 마다않고 가서 구입을 한다. 또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특별 후원금도 선뜻 주시는 고마운 후원자들이 있기에 GCF 한국 아이들 돕기 활동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다.

한국 바자에 참석하는 회원들의 항공료 및 모든 경비는 각자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한푼이라도 더 모아서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올해도 바자 준비에 열심이다. 각 지부에서는 미국, 캐나다, 홍콩, 일본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특산물을 비롯하여 각종 비타민, 가정용품, 약세서리, 신발류, 커피, 옷, 스카프, 액세서리 등등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브랜드거나 또는 가격이 아주 비싼 제품들을 저렴하게 준비하여 구입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아이들 돕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나온 바자 수익금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지원하고 장애아들을 후원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바자 준비를 여러달 동안 준비하는 사랑의 친구들에게도 올해가 어느해보다도 성공적인 바자가 되기를 바라고 수고하시는 회장님과 모든 준비위원들에게도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글로벌어린이재단 본부 사무국

사랑의 친구들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강태형	김문규	김시은	김주희	남은미	박용상	박필규	송도순	윤정순	이지성	조남만	최해경
경옥호	김미애	김연환	김지은	노영혜	박우용	박희경	송요선	이계호	인재근	조주영	최해선
김 솔	김병준	김영남	김철웅	노지혜	박윤희	방병찬	신선련	이석태	임지선	주영숙	하원호
김경돈	김복선	김완기	김한정	박경숙	박정서	배민영	심치선	이승희	임형국	차수연	하윤태
김경란	김상우	김용주	김홍기	박동찬	박정해	배장훈	안창민	이영옥	임형균	최동균	한미향
김경영	김성재	김용현	김홍주	박상지	박정훈	배주영	여성숙	이은정	장일선	최병권	홍소일
김경희	김소민	김인섭	김홍진	박상효	박정희	성인숙	오경임	이은지	정명화	최병철	홍진아
김교은	김수정	김정달	남국진	박어상	박종렬	성현정	오재환	이정원	정우상	최소영	황경민
김도균	김순자	김종량	남기현	박 영	박진희	손다혜	윤상현	이종옥	정정례	최지은	황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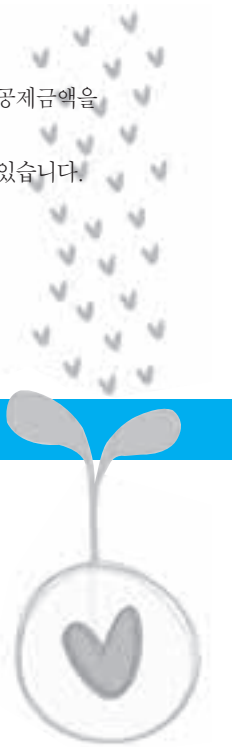
국민은행 청운동지점 • 글로벌어린이재단 • 미래회 • 애니박스 • 에스더기도선교회 • 유라 • (명)삼화사 • 한양대 (주)연합뉴스 • (주)종이나라 • (주)지오마케팅 • Cafe Livi

- * 2013년 TEPS-Speaking 응시권을 후원해 준 (주)지오마케팅(대표:김은영)에서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을 제기부해 주셨습니다.
- * 생활 속 기부문화를 실천하는 도네이션카페 CAFE LIVI(대표:오승희)에서 수익금 일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 * 2000년부터 한양대학교 교수 및 직원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KB국민은행 청운동지점에서 2006년부터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009년부터 바자에 의류후원을 해오고 있는 유라에서 매달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품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김경희(도서)	아시아나항공(기내식)
김성애(생활잡화)	유라(의류)
김영미(화장품)	하희숙(생활잡화)
대한항공(기내식)	국립발레단 · 헤렌(문화행사 초청)

- * 개별아동후원자인 김경희님이 후원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도서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 * 김영미님이 후원해 주신 마스크팩 판매금은 사랑의 떡국나누기에 전달했습니다.



연락처 등이 누락돼 기부금 영수증을 받지 못한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팀 : 734-4945 ~ 7 /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9길 10 (옥인동 47-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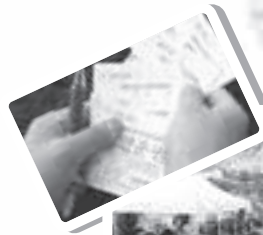
2014 사랑나누기 바자 한마당

10월 18일(토)~19일(일)

서울 정동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



어려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사랑의 친구들이

'결식아동 돕기 17번째 바자'를 엽니다

- * 의류, 주방용품, 생활품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보세요!
- * 사회저명인사들의 기증품 경매!
- * 안심할 수 있는 우리 농산품과 질 좋은 지방 특산품!
- * 글로벌어린이재단 회원들이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유명 브랜드 가방, 의류, 건강식품, 커피, 액세서리!
- * 즉석에서 만드는 먹거리 장터!
- *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모아 되파는 코끼리 장터!

바자 수익금은 전액 모두
소외지역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 문의 : 사랑의 친구들 734-4945~7